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가족체계의 영향

The Effects of Family System on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mong Unmarried Women

상명대학교 학생생활상담센터
연구원 이진하*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최연실
Students Counseling Center, Sangmyung University
Researcher : Lee, Jin-Ha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Choi, Youn-Shil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psychological independence in the family system of unmarried women to see how well they become psychologically independent within the relationships with family. A total of 452 subjects of the study were sampled from 20 to 30 unmarried women living in Seoul, Incheon and Gyeonggi-do.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cores of unmarried women's perception of family system were normal category. The scores of family system of unmarried women showed to be distributed to high scores among the overall ranges of scores which means they recognized their family system in general in a healthy way.

Second, the level of the subjects'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their fathers was shown to be higher than that from their mothers. The result means unmarried women were more dependent on their mothers than fathers.

Third, the family system of unmarried women affected the level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their parents. The sub-factors of the family system significantly affected the level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Particularly, enmeshed and disengaged boundary and cooperative factors between spouses and generations affected the level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Fourth, the family system affected each sub-factor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of unmarried women. Even though family system were different depending on each sub-factor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they affected the level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주요어(Key Words) : 미혼여성(unmarried women), 가족체계(family system),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independence)

* 주 저 자 : 이진하(E-mail : scc@smu.ac.kr)

I. 서 론

개인은 부모와 밀착된 관계를 맺어 가는 동시에 자신과 부모와의 분리를 시도하게 되면서 심리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적응력을 발달시켜 나가게 된다. 부적응 현상을 일으키는 개인의 심리적 정체성과 사회적 적응력은 가족관계 안에서 형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많은 연구자들은 관계의 중요성에 그 초점을 맞추는 가족체계 이론을 토대로 가족의 기능을 설명하려고 노력해 왔다(이미옥, 2000; Broderick & Smith, 1979; Minuchin, 1974; Olson, Sprenkle & Russell, 1979).

Minuchin(1974)은 자녀가 청년기에서 성인 초기를 거치면서 가족 내에서 겪는 변화를 가장 일반적인 발달상의 스트레스로 지적하였다. 청년은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세계를 경험하려 하고, 부모는 자녀의 이탈과 분리를 보면서 당혹감이나 정서적 혼란을 느끼게 된다(Goldenberg & Goldenberg, 1991). 이 발달적 위기는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정함으로써 긴밀하고 역동적인 관계의 구축으로 성숙해 나가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 갈등과 긴장이 해결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가 이후의 발달단계로 이행되면서 문제 상황을 고조시키게 된다. 청년기의 독립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성취하지 못한다면 이성 교제, 직업 선택, 자아정체감 확립 등 이후 발달과제의 수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청년기는 외국의 경우보다 특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구 사회에서는 20세가 되면 거의 성인으로서 경제적·심리적으로 독립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남자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까지 출생 후 약 25년에서 30년이 걸린다. 인생의 거의 1/3 정도를 부모에게 양육 받는 셈이다(이 철, 2000).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남성의 경우보다 더 부모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 여자 대학생들은 남자 대학생들보다 심리적 독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은영, 1993; 박완성, 2002; 윤승경, 1989; 이영선, 1999). 이들 연구에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심리적 독립의 시기가 더 늦거나 심리적 독립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여성들은 성인기에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결혼 전까지 부모로부터 보호와 통제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 후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모의 보호와 통제를 계속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에 따르면,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가족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제한을 받는 형편이고, 그에 따라 여성은 사회적으로는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의존적인 성격을 형성하게

되고 심리적으로는 미숙한 불완전한 성인이 될 수도 있다

는 것이다.

부모와의 의존적 관계를 벗어나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존재의식을 성취하는 심리적 독립(psychological independence)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나, 후기청소년의 심리적 독립과정의 분류들을 제시했던 Hoffman (1984)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그는 심리적 독립을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으로 분류하고, 이에 근거하여 다차원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많은 가족치료자들은 가족을 하나의 사회체계로 보면서(송성자, 2002),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가족구성원들의 상호작용 유형의 파악을 통한 가족체계 속성의 규명에 노력을 기울여왔다. 가족체계를 파악하려는 이러한 노력들 중에서 학계의 주목을 받아온 모델 중에는 Moos와 Moos(2002)의 가족환경모델(Family Environment Model), Beavers(1981)의 가족체계모델(System Model of family), Olson 등(1979)의 써컴플렉스모델(Circumflex Model), Minuchin(1974)의 이론에 기반한 구조적 가족 상호작용 모델(Structural Family Interaction Model) 등이 있다(최연실, 1996). 이 모델들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해 가족의 상호작용을 파악하는데, 그 중에서 구조적 가족 상호작용 모델은 가족경계(family boundary), 가족하위체계(family subsystem)와 가족위계질서(family hierarchy), 가족적응(family adaptability), 가족갈등해결(family conflict resolution) 등의 개념을 통해 한국의 가족체계 특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효율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박정희, 2004; 손정영, 1990; 이미옥, 2000). 이러한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밀착·분리, 세대 내·세대 간 제휴, 융통·경직, 가족 갈등 해결·미해결의 차원 등은 다양한 측면의 가족기능과 연결되며, 가족에 속한 개인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가족체계는 부모와의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 개별적인 존재성을 유지하는 심리적 독립성과도 그 연관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배경을 살펴볼 때,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상황 속에서 인간발달의 시작인 가족의 체계와 미혼여성들의 심리적 독립 수준에 대한 탐색은 상당히 주목을 받을 만한 과제이다. 특히 가족이 그 구성원들의 정서적·심리적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환경적 매개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그리고 여성들이 점점 더 사회적 진출을 원하고 독립적인 삶을 성취해내려고 하는 경향이 증가해가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이러한 연구는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간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선행연구들에서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Lucas, 1997), 가족구조가 자녀의 심리적 독립, 진로 탐색,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민경화, 1994; 송소원, 1997), 가족체계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간의 관계(김수진, 1997; 박완성, 2002), 부모-자녀 간 경계와 진로결정의 탐색(양은주, 1997) 등이 시도되었다. 현재까지의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남성과 여성의 성차에 의한 심리적 독립 수준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특히 진로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는 주로 가족응집성과 가족 적응력에 초점을 두었으며, 심리적 독립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다차원적인 이 변수를 하위영역별로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분석하기보다는 통합적으로 사용해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가족체계가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 배경을 토대로 20, 30대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포함하여 그동안 주로 청소년기나 청년기의 사람들에게만 치중하였던 연구 대상의 확대를 도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낮았던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의 틀에 입각한 가족체계 개념을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수가 되는 심리적 독립 개념도 하위요인별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되는 작업을 통하여, 미혼여성이 지각하는 가족체계나 심리적 독립의 양상이 규명될 것이며, 또한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보들은 궁극적으로 미혼여성이 가정과 사회에서의 위치 정립과 삶의 방향을 모색하는 직업준비교육이나 결혼준비교육 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심리적 독립

정신분석학에서는 심리적 독립을 ‘분리’의 개념을 통하여 접근한다. 일찍이 Mahler 등(1975)은 생의 초기에 갖는 분리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심리적 탄생’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겪게 되는 분리가 심리적 독립의 기초를 형성한다고 보고 이 개념을 통해 심리적 독립의 과정을 설명하고 이를 구체화하였다.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능력과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정체감 확득은 적응을 향한 개인의 욕구이

다(Hoffman, 1984). 이러한 심리적 독립에 대한 개념 정의에 영향을 미친 이론적 근거는 분리-개별화(separation-individuation)의 개념으로서 심리적 분리-개별화는 가족체계 및 가족치료 연구(Bowen, 1976; Minuchin, 1974)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발달 연구(Blos, 1979)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분리-개별화 과정은 부모에게 의존하던 것에서 벗어나 부모로부터 독립과 분화 및 자기정의 수준이 증가되는 과정이다(맹영임, 2001). Hoffman(1984)에 따르면, 유아기와 아동기의 분리-개별화 과정에 더하여, 후기 청소년기의 심리적 독립과정은 다음과 같은 네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차원은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 차원으로서 부모의 도움 없이 개인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는 유년기 때의 독립적으로 행동하고자 노력했던 정도가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차원은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 차원으로서 부모의 태도, 가치 및 신념으로부터의 분화 정도를 나타낸다. 이는 부모와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신념, 가치, 태도 체계를 지닌 개체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며, 유아기 때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정신적 표상 간의 분화 정도가 반영될 수 있다. 세 번째 차원은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 차원으로서 부모로부터의 승인, 친밀감, 정서적 지원 등의 과도한 욕구로부터의 자유로움을 뜻한다. 네 번째 차원인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 차원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도한 죄의식, 불안, 불신, 책임, 억제, 후회, 분노 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서적 독립과 갈등적 독립 차원은 특히 유아기 때의 어머니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갈등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감정만큼이나 긍정적 감정 역시 반영될 수 있다고 하였다(맹영임, 2001).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으로 가는 시기인 청년 후기에서부터 성인 초기까지 부모로부터의 적절한 심리적 독립을 해야 한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지만, 이와 관련된 실증적 연구는 사실상 그리 많지 않았다. 이것은 객관적 측정도구가 개발되지 않은 데 기인한다. 심리적 독립과 관련된 초기 연구들은 주관적인 방법으로 심리적 독립을 다루는 등 측정 방법상의 혼란을 보이고 있다(Donovan, 1975; Josselson, 1980, 1988; Moore, 1987). Hoffman(1984)은 심리적 독립에 내재되어 있는 복잡한 과정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이 부족한 것은 심리적 독립을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인식하고, 정신분석이론을 기초로 심리적 독립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심리적 독립수준 척도인 PSI(Psychological Separation Inventory)를 개발함으로써 후기 청소년기의 분리-개별화 과정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 가족체계

가족체계는 상당수의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접근되어 왔는데,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조적 가족치료모델의 가족체계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1) 가족경계

가족 구조내의 경계에 대한 개념은 Minuchin(1974)이 사용한 기능적인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경계 개념은 지지, 돌보는 것, 자율성, 개별화 등의 사이에서 이상적인 균형상태를 의미한다(Becvar & Becvar, 1988).

Minuchin(1974)은 모든 가족들은 밀착된 경계선(enmeshed boundary)과 분리된 경계선(disengaged boundary)을 양극으로 하는 연속선 상의 어느 지점에 위치한다고 보았다. 하위체계들 사이에 이상적인 경계는 분명한 경계(clear boundary)라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경계는 안정되고 융통성이 있는 경계를 의미한다. 경계가 분명한 가족체계에서 가족성원들은 서로 지지적이며, 서로 돌보고 상호 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

분리된 경계는 하위체계 사이와 가족 밖의 체계와의 경직된 상태를 의미하며, 지나치게 분명해서 불침투적인 것을 의미한다. 가족성원들은 자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독립적이며 충성심과 소속감이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원조를 요청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밀착된 경계는 경직된 경계와는 대조된다. 아주 심하게 밀착되어 있는 가족구조는 가족성원들 사이의 경계선이 대체로 미분화되어 있고 침투가 잘 되며 유동적이다. 가족성원들 사이의 구분은 희미하고 거리감이 없고 강한 소속감 때문에 자율성이 방해를 받고 문제에 대한 자발적인 대처를 방해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족경계라는 가족체계 개념을 밀착·분리의 차원을 통하여 접근한다.

2) 가족 하위체계(family subsystem)와 위계(family hierarchy)

가족을 하나의 전체 체계(total system)로 보면 개인은 하나의 하위체계이며, 개인은 가족 내의 다른 체계들과 함께 가족의 기능을 분배하고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하위체계는 세대, 성, 흥미, 기능에 따라 형성된다. 대표적인 하위체계로는 부부 하위체계, 부모 하위체계, 형제 하위체계 등이 있다(Minuchin, 1974).

구조적 가족치료자들은 가족 내에서 부모들이 바람직한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모들이 집행권력을 가지고 하위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세대 간 경계를 명확화

해 정의하고, 둘째, 자녀양육과 같은 주요문제들에 대한 부모 사이의 협력이 있어야 하고, 셋째, 권력과 권위와 관련된 규칙들이 있어야만 한다고 믿는다(Goldenbergs & Goldenbergs, 1991).

구조적 가족치료모델에서는 강한 부모끼리 세대 내 제휴한 결과로서 얻은 세력은 자녀양육과 제한적인 것을 설정하는 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반면 다른 부모에게 대항하기 위한 부모 자녀 사이의 세대 간 제휴한 결과는 가족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역기능적으로 만든다고 본다(송성자, 2002: 26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족하위체계와 위계라는 가족체계 개념을 세대 내·세대 간 제휴의 차원을 통하여 접근한다.

3) 가족적응(family adaptability)

가족적응은 가족 구조의 융통성, 변화가능성의 정도와 관련이 있으며, 적응과정은 권리구조, 역할기능, 규칙, 상호작용 능력을 가진 가족체계와 관련이 있다.

적응에 대한 Minuchin의 개념은 스트레스와 갈등에 대처하는 가족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가족체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한 가족구성원이 가족 외부 세력과 접촉할 때, 가족성원 전체가 가족 외부 세력과 접촉할 때, 가족의 발달 단계상의 과도기, 가족이 갖고 있는 특유한 문제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이미옥, 2000).

정상적인 가족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고 적응하고 가족구조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적절하게 기능하여 온 가족도 이전의 발달단계에 접착하므로 발달상의 긴장이 나타난다. 갈등과 긴장을 극복할 수 있는 체계의 능력은 가족의 내적·외적 상황이 재구조화를 필요로 할 때 다른 상호교류 유형으로 수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상호교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리고 하위체계의 영역이 분명하고 안정되어야 하지만 환경이 변할 때 다시 제휴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송성자, 2002: 268).

가족은 재구조화하면서 가족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긴장에 적응하여야 한다. 하지만 만일 가족이 너무 경직되게 반응할 경우 역기능적 양상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족적응이라는 가족체계 개념을 융통·경직의 차원을 통하여 접근한다.

4) 가족갈등해결(family conflict resolution)

Minuchin(1974)은 정상가족은 가족의 내적·외적 압력으로 많은 긴장을 경험할 때 당황하지 않고, 사회적 압력으로 인한 긴장을 극복하면서 계속적으로 가족 성원 간의

지지, 조화, 협조로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며 긴장 없는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선을 따르는 구조적 가족치료에서는 가족 내 각 하위체계가 갈등을 해결하는 정도를 세 가지로 평가한다(이미옥, 2000: 38). 첫째, 갈등 해결은 가족성원들이 서로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있으며, 갈등이나 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며 문제는 타협하여 해결하는 경우이다. 둘째, 갈등 표현은 가족성원들이 싸우며 화를 내지만 문제에 대한 해결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셋째, 갈등 회피는 가족성원들이 말다툼이나 싸움을 피하며, 가족 중 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면, 상대방은 이야기하기를 미루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족갈등해결이라는 가족체계 개념을 부부갈등 해결·미해결의 차원을 통하여 접근한다.

3.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인 심리적 독립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 또래집단, 학교 등 사회로부터의 개인행동에 대한 기대(사회화 과정), 부모-자녀관계와 가족체계, 청소년의 생물학적 성숙 수준 등의 외부요인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달한다(김수진, 1997). 심리적 독립을 잘 성취한 성인은 정서적으로 건강하며,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잘 주도해 나갈 수 있으며, 새로운 가정을 형성함에 있어서도 건강한 방식으로 배우자와 관계를 맺고 건강한 체계를 지닌 가족을 형성할 것이다. 이러한 심리적 독립은 성취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가족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갈등은 가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체계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 간의 관계를 다룬 외국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가족치료적 관점에서 이를 제시한 Minuchin(1974)과 Bowen(1976)의 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가족치료모델의 대표적인 주류이론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들은 공통적으로 개인의 심리적 독립은 가족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함과 동시에 가족과의 친밀감 속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을 지각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한편, Moore(1987), Wechter(1983)와 Josselson(1988)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족체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고, Kandel과 Lasser(1969), Baumrind(1971)와 Edler(1980)는 자녀의 의사결정의 독립과 관련된 연구들에서 민주적인 부모를 둔 자녀가 과다하게 허용적이거나 전제적인 부모의 자녀들보다 더 독립적이라고 하였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시도한 연구도 있다. Lucas(1997)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자녀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다.

또한, Hoffman(1984)은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부모의 태도가 자녀의 심리적 독립을 발달시킨다고 하였다. 가족의 문제해결 방법, 권력, 권위, 역할, 자율성의 격려가 청소년기의 자녀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에서도 자율을 격려하는 가족의 자녀는 그렇지 않은 가족의 경우보다 정서적으로 더 건강하였으며, 부모의 권위나 책임이 부모 한 쪽에 치우쳐 있을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태도뿐 아니라 융통성 있는 가족구조가 심리적 독립과 관련된다는 견해이다.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구조가 자녀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민경화, 1994; 송소원, 1997)이 있다. 역기능적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간의 관계를 연구한 민경화(1994)는 분리에 대한 불안을 보이는 가족이나 과잉개입 가족, 부모-자녀 간 역할전도 가족에서는 자녀의 심리적 독립이 전반적으로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혜준(1993), 김진희(1999)와 맹영임(2001)은 청소년기의 청년들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응집력, 적응력과 심리적 독립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적응과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김수진(1997), 박완성(2002)은 가족체계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 간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에서 가족관계와 심리적 독립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양은주(1997)는 진로결정을 못 내리는 학생일수록 부모의 지나친 개입이 있으며, 부모-자녀간 경계가 약하다고 시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 연구는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 사이의 유의한 관계가 미혼여성들이 지각한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 사이에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I. 연구문제 및 변수의 정의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그들이 지각하는 가족체계의 전반적 경향을 알아보고,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가족체계의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을 갖는다. 한편 이와 아울러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김

수진, 1997; 맹영임, 2001, 민경화, 1994; 박완성, 2002, 이철, 2000, 정은희, 1993)에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 사회인구학적 변수(연령, 직업, 소득 수준, 부 직업, 모 직업), 결혼관련 변수(결혼상대 유무, 친구의 결혼 여부, 결혼계획) 등의 배경변인이 미혼 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미혼여성이 지각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가족체계는 어떠한 경향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미혼여성의 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배경변인과 가족체계의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3-1.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미치는 배경변인과 가족체계의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3-2.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에 미치는 배경변인과 가족체계의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3-3.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에 미치는 배경변인과 가족체계의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3-4.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 미치는 배경변인과 가족체계의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은 어떠한가?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3. 변수의 정의

1) 심리적 독립

Josselson(1988)이 정의한 개념을 참고하여, 부모와의 의존적 관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사고와 가치, 신념체계를 지니며, 개별적인 존재로서, 부모와의 과도한 친밀감과 정서적 지원 등의 과도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우며, 부모에 대한 과도한 죄의식, 불안, 불신, 분노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정도로 정의한다. 이 변수는 다음과 같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

기능적 독립이라 함은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일을 시행할 줄 아는 개인적 능력을 말한다.

(2)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

부모와 다른 독특한 스스로의 이미지와 자기 자신만의 신념, 가치, 의견 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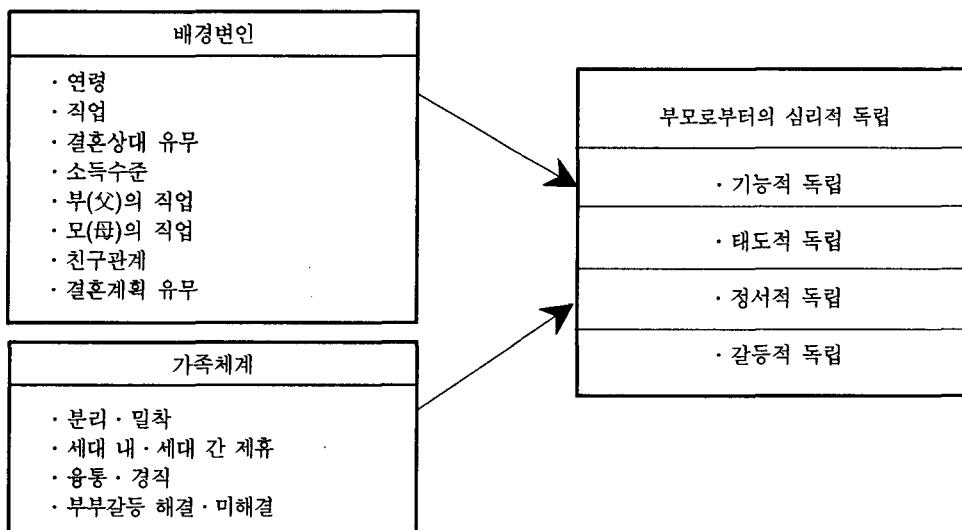
부모와의 밀착된 관계에 대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4)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과도한 죄의식, 불안,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2) 가족체계

Minuchin(1974)이 정의한 체계의 개념을 기초로 김용태



<그림 1> 연구모형

(2001)가 설명한 개념을 참고로 하여, 가족구성원들과 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정한 형태로 정의한다. 가족체계는 가족 전체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규칙들과 가족 하위체계들에 적용되는 규칙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가족구조의 형태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가족체계는 밀착·분리, 세대 내 제휴·세대 간 제휴, 융통·경직, 부부갈등 해결·미해결의 차원으로 나타난다.

IV.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만20세부터 만38세 미만의 여성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성과 일반여성들 중 미혼여성 452명이다.

2. 조사도구의 구성

1) 심리적 독립 척도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는 Hoffman(1984)이 개발한 PSI를 정은희(1993)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26문항을 제외하여 138문항을 112문항으로 수정·번역한 것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의 심리적 독립 척도는 총 56문항으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각각 4개의 하위척도로 나누어진다. 각 하위척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일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줄 아는 능력을 측정하는 '기능적 독립(functional independence: FI)' 13문항, 자신의 부모와는 다른 자기 자신만의 신념, 가치, 태도를 측정하는 '태도적 독립(attitudinal independence: AI)' 13문항, 부모로부터 승인, 친밀감 및 감정적 지지를 위한 과도한 욕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를 측정하는 '정서적 독립(emotional independence: EI)' 10문항, 부모를 향한 죄의식, 불안, 분노, 불신, 억압 혹은 적의의 부재를 측정하는 '갈등적 독립(conflictual independence: CI)' 20문항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각 하위척도의 점수가 낮을수록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역산하여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독립수준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독립의 Cronbach's α 계수는 0.92로 나타났다. 아버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0.89, 태도적 독립은 0.88, 정서적 독립은 0.85, 갈등적 독립은 0.90이며, 어머니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은 0.86, 태도적 독립은 0.84,

정서적 독립이 0.83, 갈등적 독립이 0.88으로 전체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고 있다.

2) 가족체계 진단 척도(FSDS: Family System Diagnosis Scale)

본 연구에서는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에 기반을 둔 구조적 상호작용 척도(Structural Family Interaction Scale-Revised: SFIS-R)를 참고하여 한국적 특성에 맞게 제작한 이미옥(2004)의 가족체계 진단 척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가족체계 진단 척도는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 패턴을 확인하기 위해 개발된 자기 보고식 척도이다. 전체적인 가족체계를 평가하는 2개의 요인 중 밀착·분리는 16문항, 융통·경직은 5문항, 세대 간의 경계를 평가하는 2개의 요인 중 세대 내·세대 간 제휴는 6문항, 부부갈등 해결·미해결은 8문항으로 구성되며, 총 문항은 3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에 2점, '그런 편이다'에 3점, '그런 편이다'에 4점, '아주 그렇다'에 5점을 부여하였다. 전체 문항에서 6, 7, 8, 9, 10, 11, 12, 19, 20, 21, 22, 32, 33, 34는 역산하여 계산한다. 가족체계 진단 척도의 각 하위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체계가 밀착되어 있으며, 융통성이 있고, 세대 내 제휴가 잘 이루어지며, 부부갈등 해결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족체계 전체의 Cronbach's α 계수는 0.94로 나타났다. 밀착·분리는 0.88, 세대 내 제휴·세대 간 제휴는 0.63, 융통·경직은 0.81, 부부갈등 해결·미해결은 0.85로 전반적으로 척도의 신뢰도는 높은 편이다.

3.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04년 10월 8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에 관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다.

20~30대의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대학생과 대학원생,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과 판매직에 종사하는 여성,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 등을 무선표집하여 설문을 배부하여 조사하였다. 총 518부를 배부하여 476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476부 중 설문지 응답이 누락된 자료와 연구의 특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한 45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SPSS/WIN(Ver.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가족체계 진단 척도와 심리적 독립 척도의 신뢰도 계수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여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사하였다.

둘째, 미혼여성의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의 전반적인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셋째, 미혼여성의 부와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미혼여성이 지각한 가족체계가 심리적 독립수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심리적 독립수준의 각 하위요인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자 집단 중 연령별 분포는 만20세에서 만24세까지의 20대 초·중반의 여성인 217명(48%)이며, 만25세부터 만29세의 20대 중·후반의 여성인 172명(38.1%)이고, 만30세부터 만34세의 30대 초·중반의 여성인 54명(11.9%)이며, 만35세 이상의 여성인 9명(2%)으로 나타나, 20대 여성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86%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직업별 분포는 일반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인 180명(39.8%)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학생이 155명(34.3%)으로 그 다음으로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학력 수준은 대학 재학인 159명(35.2%)으로 가장 비율이 높으며, 초대졸 이상의 학력인 141명(53.3%)이다.

조사대상자 중 결혼상대가 있는 경우가 188명(41.6%)이며, 결혼상대자가 없는 경우가 264명(58.4%)으로 아직 결혼상대자가 없는 경우의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결혼계획의 유무에 대한 분포는 결혼할 계획 있다는 경우가 230명(50.9%)이고, 결혼계획이 없다는 경우가 221명(48.9%)으로, 결혼계획이 있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상대자가 있는 경우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 아직 결혼상대자가 없는 경우에도 '결혼계획 있다'라고 답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가족체계의 전반적 경향

먼저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서의 전반적 경향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전체적으로 미혼여성의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심리적 독립수준의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갈등적 독립은 중간 이상으로 나타나고 정서적 독립은 중간 정도의 점수 분포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 하위영역에서 미혼여성은 부로부터 어느 정도 심리적 독립을 이루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면, 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은 중간 이하로 나와서 이 하위영역에서 미혼여성은 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한 것은 심리적 독립의 갈등적 영역에서는 부와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점수가 모두 중간 이상으로 나왔으며, 부와 모 사이에 점수 차이가 크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혼여성의 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유난히 점수가 낮게 나타나 이 영역에서는 미혼여성의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미혼여성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전반적 경향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하위차원에서 모두 중간 이상의 점수가 나타나 가족체계는 밀착되고, 세대 내 제휴가 더 잘 이루어지고, 융통적이며,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미혼여성의 부와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의 차이

미혼여성의 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t 검증 결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 참조). 이를 심리적 독립의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능적 독립($t=12.196$, $p<.001$), 태도적 독립($t=10.386$, $p<.001$), 정서적 독립($t=15.522$, $p<.001$)에서 모두 미혼여성은 어머니로부터보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이 독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미혼여성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차원에서 더 많이 의존하는 양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혼여성의 심리적 독립의 하위영역 중 갈등적 독립은 부와 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여, 부모를 향한 죄의식, 불안, 분노, 불신, 억압 혹은 적의의 부재를 나타내는 갈등적 독립수준은 부와 모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인데, 이와 같은 결과는 이 특수한 독립성 차원의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특 성	구 分	빈 도(%)	특 성	구 分	빈 도(%)
연 령	만20-24세	217(48)	출생순위	외 동	1(0.2)
	만25-29세	172(38.1)		첫 째	220(48.7)
	만30-34세	54(11.9)		둘 째	153(33.8)
	만35세 이상	9(2)		셋 째	49(10.8)
				넷째 이상	29(6.4)
거주지	서울	306(67.7)	소득수준	월 100만원 이하	28(6.2)
	인천	20(4.4)		월 100~150만원	53(11.7)
	경기	126(27.9)		월 150~200만원	49(10.8)
종 교	무교	150(33.2)		월 200~250만원	47(10.4)
	기독교	182(40.3)		월 250~300만원	80(17.7)
	천주교	67(14.8)		월 300만원 이상	195(43.1)
	불교	49(10.8)			
	기타 종교	4(0.9)			
직 업	사무직	180(39.8)	부(父) 직업	사무직	132(29.2)
	전문직	59(13.1)		전문직	46(10.2)
	숙련직	2(0.4)		비숙련직	23(5.1)
	판매직	2(0.4)		숙련직	47(10.4)
	예술인	7(1.5)		판매직	32(7.1)
	관리직	2(0.4)		예술인	1(0.2)
	학생	155(34.3)		관리직	48(10.6)
	무직	18(4.0)		학 생	3(0.7)
	기타	27(6.0)		무 직	28(6.2)
				기 타	92(20.4)
학 력	고 졸	52(11.5)	모(母) 직업	사무직	12(2.7)
	대학 재학	159(35.2)		전문직	15(3.3)
	초대졸	75(16.6)		비숙련직	11(2.4)
	대 졸	115(25.4)		숙련직	4(0.9)
	대학원 재학	33(7.3)		판매직	13(2.9)
	대학원졸 이상	18(4.0)		예술인	4(0.9)
결혼상태	있 음	188(41.6)		관리직	0(0.0)
우·무	없 음	264(58.4)		학 생	2(0.4)
부(父)연령	40대	82(18.1)	부모생존 여부	무 직	222(49.1)
	50대	274(60.6)		기 타	169(37.4)
	60대	88(19.5)			
	70대 이상	8(1.8)			
모(母)연령	40대	177(39.2)	부모의 결혼상태	모두 생존	419(92.7)
	50대	238(52.7)		부만 생존	2(0.4)
	60대	35(7.7)		모만 생존	30(6.6)
	70대 이상	2(0.4)		모두 사망	1(0.2)
형제 수	0	9(2.0)	동거가족 형태	결혼 중	408(90.3)
	1	169(37.4)		별거 및 이혼	21(4.6)
	2	132(29.2)		기 타	23(5.1)
	3	87(19.2)	친구의 결혼유무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36(8.0)
	4	40(8.8)		부모, 형제자매	282(62.4)
	5	8(1.8)		부, 형제자매	4(0.9)
	6	3(0.7)		모, 형제자매	22(4.9)
	7	3(0.7)		형제자매	30(6.6)
	8	1(0.2)		기 타	78(17.3)
				거의 대부분 결혼	27(6.0)
				대부분 결혼	39(8.6)
				반정도 결혼	63(13.9)
				대체로 미혼	126(27.9)
				거의 미혼	197(43.6)
			결혼계획	있 음	231(51.1)
				없 음	221(48.9)

<표 2>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수준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점수 범위	실제 범위	평균 (M)	표준편차 (SD)
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FI)	13~65	17~65	43.90	9.08
	태도적 독립(AI)	13~65	13~65	41.09	7.79
	정서적 독립(EI)	10~50	13~50	30.88	6.62
	갈등적 독립(CI)	20~100	37~100	67.53	12.18
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FI)	13~65	15~63	38.94	8.74
	태도적 독립(AI)	13~65	15~65	37.96	7.37
	정서적 독립(EI)	10~50	12~49	26.32	6.18
	갈등적 독립(CI)	20~100	34~95	67.58	11.13

<표 3> 미혼여성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점수 범위	실제 범위	평균 (M)	표준편차 (SD)
분리 · 밀착		8.68	16~80	59.26	29~76
세대 내 제휴 · 세대 간 제휴		3.84	6~30	23.70	13~53
융통 · 경직		2.97	5~25	17.76	9~25
부부갈등 해결 · 미해결		5.29	8~40	25.76	8~39

<표 4> 미혼여성의 부와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대한 차이 검증

구 분	심리적 독립							
	기능적 독립 (FI)		태도적 독립 (AI)		정서적 독립 (EI)		갈등적 독립 (CI)	
	부	모	부	모	부	모	부	모
평균(M)	43.90	38.94	41.09	37.96	30.88	26.32	67.53	67.58
표준편차(SD)	9.08	8.74	7.79	7.37	6.62	6.18	12.18	11.13
t-검증	12.196***		10.386***		15.522***		-.110	

*** p< .001

4.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배경변인과 가족체계의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미혼여성의 배경변인이 동일한 상황에서 가족체계가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배경변인(연령, 직업, 결혼상태 유무, 소득 수준, 친구의 결혼 유무, 결혼계획 유무)을 통제변인으로, 그리고 가족체계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종속변인인 부와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하위영역별로 위계적 회귀분석¹⁾을 실시하였다.

1) 각 분석에서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분산팽창계수(VIF)가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을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미치는 배

경변인과 가족체계의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표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혼여성의 배경변인과 가족체계가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양상이 다양하며, 그 변인들은 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변량(24.4%)보다 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변량(30.6%)을 더 많이 설명한다. 부와 모별로 기능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혼여성의 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관련 계변인 중 배경변인으로는 소득수준, 가족체계 변인으로는 밀착·분리와 부부갈등 해결·미해결로 나타났다. 즉 미혼여성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체계가 밀착될수록 가정내 부부갈등이 잘 해결될수록 아버지로부터 기능적으로

<표 5>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β	R^2	ΔR^2	F
부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1	연령	-.094			
		직업 ^a	-.051			
		결혼상대 유무 ^b	.007			
		소득수준	.159 ***	.061		4.657***
		친구의 결혼 여부 ^c	-.049			
	2	결혼계획 유무 ^d	-.140 **			
가족체계	1	연령	-.103			
		직업 ^a	-.042			
		결혼상대 유무 ^b	.008			
		소득수준	.095 *			
		친구의 결혼 여부 ^c	-.050			
		결혼계획 유무 ^d	-.064	.244	.183	13.113***
	2	밀착·분리	.335 ***			
		세대 내·세대 간 제휴	-.074			
		융통·경직	.023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196 ***			
		연령	-.061			
모로부터의 기능적 돋립	1	직업 ^a	-.288 ***			
		결혼상대 유무 ^b	-.092 *			
		소득수준	.133 **	.149		10.867***
		친구의 결혼 여부 ^c	.028			
		결혼계획 유무 ^d	-.074			
	2	연령	-.071			
		직업 ^a	-.279 ***			
		결혼상대 유무 ^b	-.091 *			
		소득수준	.078			
		친구의 결혼 여부 ^c	.027			
		결혼계획 유무 ^d	.000	.306	.157	17.699***
		밀착·분리	.333 ***			
		세대 내·세대 간 제휴	-.115 *			
		융통·경직	.027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175 ***			

* p< .05, ** p< .01, *** p< .001

주) a직업: 1=직장인 0=학생, b결혼상대 유무: 1=있음, 0=없음, c친구의 결혼 여부: 1=기혼, 0=미혼, d결혼계획 유무: 1=유, 0=무

독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혼여성의 모로부터의 기능적 돋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경변인으로는 직업, 결혼상대 유무가, 가족체계 변인으로는 밀착·분리, 세대 내·세대 간 제휴, 부부갈등 해결·미해결로 나타났다. 즉 미혼여성은 학생일 경우, 결혼상대가 없는 경우, 가족이 밀착될수록, 세대 간 제휴가 이루어질수록 가정 내 부부갈등이 잘 해결될수록 어머니로부터 기능적으로 돋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부로부터의 기능적 돋립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밀착·분리,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소득수준 순이며, 모로부터의 기능적 돋립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밀착·분리, 직업,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세대 내·간 제휴, 결혼상대 유무 순이다.

주목할 것은 미혼여성의 부와 모로부터의 기능적 돋립 모두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밀착·분리와 같은 가족경계나 부부갈등해결·미해결과 같은 가족갈등해결로

<표 6>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β	R^2	ΔR^2	F
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1	연령	-.056			
		직업 ^a	-.038			
		결혼상대 유무 ^b	-.039			
		소득수준	.145**	.055		4.289***
		친구의 결혼 여부 ^c	.021			
	2	결혼계획 유무 ^d	-.146**			
모로부터의 태도적 독립	1	연령	-.052			
		직업 ^a	-.033			
		결혼상대 유무 ^b	-.031			
		소득수준	.069			
		친구의 결혼 여부 ^c	.020			
	2	결혼계획 유무 ^d	-.082	.258	.203	14.058***
가족체계	1	밀착·분리	.203***			
		세대 내·세대 간 제휴	.026			
		융통·경직	.155**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202***			
	2	연령	-.097			
		직업 ^a	-.089			
가족체계	1	결혼상대 유무 ^b	-.094			
		소득수준	.076			
		친구의 결혼 여부 ^c	.031			
		결혼계획 유무 ^d	-.088			
		연령	-.097			
	2	직업 ^a	-.083			
가족체계	1	결혼상대 유무 ^b	-.086			
		소득수준	.009			
		친구의 결혼 여부 ^c	.028			
		결혼계획 유무 ^d	-.027			
		밀착·분리	.213***			
	2	세대 내·세대 간 제휴	-.013			
		융통·경직	.160**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160**			

** p< .01, *** p< .001

주) a직업: 1=직장인 0=학생, b결혼상대 유무: 1=있음, 0=없음, c친구의 결혼 여부: 1=기혼, 0=미혼, d결혼계획 유무: 1=유, 0=무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도움 없이 자신의 일을 시행할 줄 아는 개인적 능력을 가리키는 기능적 독립은 가족경계의 설정이나 갈등의 처리와 관련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수준 및 전로 미결정의 관계를 연구한 맹영임(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2)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에 미치는 배경변인과 가족체계의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표 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혼여성의 배경변인과 가족체계가 부모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양상이 다양하며, 그 변인들은 부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변량(25.8%)을 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변량(21.6%)보다 더 많이 설명한다. 부와 모별로 태도적 독립에 영향을 미

<표 7>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β	R^2	ΔR^2	F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1	연령	-.144*			
		배직업 ^a	.031			
		경결혼상대 유무 ^b	-.060			
		변소득수준	.101*	.051		4.013***
		인친구의 결혼 여부 ^c	-.025			
		결혼계획 유무 ^d	-.151**			
가족체계 계	2	연령	-.158**			
		배직업 ^a	.044			
		경결혼상대 유무 ^b	-.058			
		변소득수준	.019			
		인친구의 결혼 여부 ^c	-.038	.346	.295	20.897***
		결혼계획 유무 ^d	-.067			
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1	밀착·분리	.445***			
		세대 내·세대 간 제휴	-.027			
		융통·경직	.052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163***			
		연령	-.121			
		배직업 ^a	-.148			
2	2	경결혼상대 유무 ^b	-.088	.102		7.396***
		변소득수준	.126			
		인친구의 결혼 여부 ^c	.051			
		결혼계획 유무 ^d	-.101			
		밀착·분리	.404***			
		세대 내·세대 간 제휴	-.081			
		융통·경직	.043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073			

* p<.05, ** p<.01, *** p<.001

주) a직업: 1=직장인 0=학생, b결혼상대 유무: 1=있음, 0=없음, c친구의 결혼 여부: 1=기혼, 0=미혼, d결혼계획 유무: 1=유, 0=무

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경변인은 없고, 가족체계 변인 중에서는 세대 내·간 제휴 변인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 즉 미혼여성은 가족이 밀착될수록, 가족규칙이 융통적일수록, 가정 내 부부갈등이 잘 해결될수록, 아버지로부터 태도적으로 독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혼여성의 모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경변인으로는 역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없고, 가족체계 변인으로는 밀착·분리, 세대 내, 세대 간 제휴, 부부갈등 해결·미해결로 나타났다. 즉 미혼여성은 아버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과 동일하게 가족이 밀착될수록, 가족적응이 융통적일수록, 가정 내 부부갈등이 잘 해결될수록 어머니로부터도 태도적으로 독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부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밀착·분리,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유통·경직 순이며, 모로부터의 태도적 독립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밀착·분리이며, 그 다음으로는 유통·경직과 부부갈등 해결·미해결이 동일한 영향력을 미친다.

흥미로운 것은 미혼여성의 부와 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에서보다 태도적 독립에서는 밀착·분리와 함께 유통·경직이나 부부갈등 해결·미해결과 같은 가족체계적 개념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대학생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만족도와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를 연구한 김수진(1997)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연구결과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미혼여성의 태도적 독립에서는 세대 내·간 제휴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와 다른 독특한 스스로의 이미지와 자기 자신만의 신념, 가치, 의견 등을 가질 수 있는 능력으로 표현되는 태도적 독립이 가족경계나 적응, 가족갈등 해결과는 연관이 있지만 하위체계나 위계의 작용과는 관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이다.

3)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에 미치는 배경변인과 가족체계의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혼여성의 배경변인과 가족체계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양상이 다양하며, 그 변인들은 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변량(34.6%)을 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변량(27.8%)보다 더 많이 설명한다. 부와 모별로 정서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혼여성의 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경변인은 연령이고, 가족체계 변인 중에서는 밀착·분리,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 즉 미혼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가족이 밀착될수록, 가정 내 부부갈등이 잘 해결될수록, 아버지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혼여성의 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배경변인으로는 연령, 직업, 결혼상태 유무가, 가족체계 변인으로는 밀착·분리가 나타났다. 즉 미혼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학생일 경우, 결혼상태가 없을 경우, 그리고 가족이 밀착될수록 어머니로부터도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밀착·분리,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연령 순이며, 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밀착·분리, 연령, 직업 순이다.

가족치료자인 Minuchin(1974)이나 Bowen(1976)은 개인의 심리적·정서적 독립은 가족으로부터의 분화와 동시에

가족과의 친밀감 속에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자기를 수용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Baumrind(1971)도 정서적으로 밀착되면서도 민주적인 부모를 둔 자녀가 과도하게 혜용적이거나 전제적인 부모를 둔 자녀보다 더 독립적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미혼여성의 부와 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에 가족체계 내에서의 밀착·분리와 같은 가족경계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특히 가족이 밀착될수록 미혼여성이 정서적 독립을 이룬다는 결과는 이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증거로 보여 진다. 또한 이는 국내연구에서 역기능적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 간의 관계를 연구한 민경화(1994)가 분리에 대하여 불안을 보이는 가족이나 과잉개입 가족, 부모-자녀간 역할 전도 가족에서는 전반적 독립이 낮아진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4)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 미치는 배경변인과 가족체계의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

미혼여성의 부와 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은 <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에 미치는 배경변인과 가족체계의 영향에 대한 분석은 부와 모를 분리하여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표 8>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혼여성의 배경변인과 가족체계가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 미치는 영향은 그 양상이 다양하며, 그 변인들은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변량의 43.6%를 설명한다. 부모의 갈등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은 직업, 소득수준으로 나타났고, 가족체계 변인은 모든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 즉 미혼여성은 학생보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이 분리될수록, 세대 간 제휴가 이루어질수록, 가족적응이 경직될수록, 가정 내 부부갈등이 미해결될수록 부모로부터 갈등적 독립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세대 내·간 제휴, 밀착·분리, 유통·경직, 직업, 소득수준 순이다.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오는 과도한 죄의식, 불안,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갈등적 독립은 가족경계, 하위체계나 위계, 적응, 가족갈등해결과 같은 가족체계와 긴밀한 연관을 가지며, 특히 이 중에서도 가족갈등해결이나 하위체계, 위계 등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적 독립이 가족의 내적·외적 긴장의 해결 등 갈등처리와 세대간 경계 설정이나 부모 권위의 수립과 관련된 규칙 설정 등의 하위체계 간 상호작용과 긴밀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8>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β	R^2	ΔR^2	F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	1	연령	-.055	.024	2.359*	2.359*
		직업 ^a	.114*			
		결혼상대 유무 ^b	.061			
		소득수준	-.041			
		친구의 결혼 여부 ^c	.032			
		결혼계획 유무 ^d	.048			
2	2	연령	-.067	.436	.412	30.103***
		직업 ^e	.106**			
		결혼상대 유무 ^e	.054			
		소득수준	.073*			
		친구의 결혼 여부 ^c	.039			
		결혼계획 유무 ^d	-.019			
가족체계	3	밀착·분리	-.186***	.620	.598	30.103***
		세대 내·세대 간 제휴	-.215***			
		융통·경직	-.183***			
		부부갈등 해결·미해결	-.276***			

* p < .05, ** p < .01, *** p < .001

주) a직업: 1=직장인 0=학생, b결혼상대 유무: 1=있음, 0=없음, c친구의 결혼 여부: 1=기혼, 0=미혼, d결혼계획 유무: 1=유, 0=무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대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혼여성의 아버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갈등적 독립에서 미혼여성은 부모로부터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독립을 이룬다. 반면, 상대적으로 미혼여성은 모로부터의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에서는 심리적 독립을 잘 이루지 못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심리적 독립의 갈등적 영역에서는 미혼여성의 부와 모로부터의 독립이 높게 이루어지며, 미혼여성의 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은 다른 영역에 비하여 독립을 잘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미혼여성이 지각한 가족체계는 밀착되고, 세대 내 제휴가 더 잘 이루어지고, 융통적이며, 부부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높다.

미혼여성은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갈등적 독립 영역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갈등적 독립의 개념적 정의를 살펴보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죄의식, 불안, 후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데(Hoffman, 1984), 이는 다른 세 개의 심리적 독립의 하위영역과는 다른, 다소 부정

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부와 모 간에 차이를 유발할 어떤 조건을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혼여성이 지각한 가족체계는 대체로 가족기능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각하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밀착 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옹집성이나 단합을 중시하는 한국가족의 특수성(송성자, 2001: 40-41)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혼여성은 전반적으로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보다 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높다. 구체적으로 미혼여성은 심리적 독립의 하위영역인 기능적 독립, 태도적 독립, 정서적 독립에서 모두 아버지로부터 더 많이 독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미혼여성이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게 기능적, 태도적, 정서적 차원에서 더 많이 의존하는 양상을 반영한다.

특히 미혼여성은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독립이 아주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여성들이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상호의존하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모녀관계의 특수한 조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Gilligan(1982)은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관계지향적 특성을 더 많이 갖게 되므로 인간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강한 지향성을 가진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 이러한 성향이 모녀관계에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신분석학적 페미니즘의 전영에 있는 Chodorow(1978)는 '모성의 재생 산'이라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남근기에 경험하는 외디푸스 콤플렉스를 통해 남아들은 아버지를, 여아들은 어머니를 동일시하게 되는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장에 나간 아버지를 동일시하게 되는 남아들은 단절적이고 독립지향적이 되지만 가정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를 동일시하는 여아들은 어머니와 연속적이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관계지향적으로 성장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빌어 본 연구결과를 설명한다면, 미혼여성들은 발달과정에서 형성한 어머니와의 상호의존과 관계 형성이 유난히 어머니와의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조건으로 작용하지 않았는가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미치는 배경변인과 가족체계의 영향과 상대적 설명력은 다르다. 기능적 독립에서는 가족체계 변인 중 밀착·분리, 부부 갈등해결·미해결과 배경변인 중 직업, 태도적 독립에서는 밀착·분리, 부부 갈등해결·미해결, 융통·경직 등의 가족체계변인, 정서적 독립에서는 가족체계 변인 중 밀착·분리, 부부 갈등해결·미해결, 배경변인 중 연령, 직업, 결혼상대 유무, 갈등적 독립에서는 가족체계 변인은 모두, 배경변인으로는 직업, 소득수준, 모 직업 등이 영향을 미친다.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서 하위영역별로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체계 변인 중 밀착·분리이다.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은 미혼여성들이 지각하는 가족 내에서의 밀착 정도가 클수록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분리된 가족경계와 이에 따른 자아분화가 심리적 독립을 가져올 것이라는 구조적 가족치료이론(Minuchin, 1974)이나 다세대 가족치료이론(Bowen, 1978)의 기본적 견해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우리나라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즉 한국의 문화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족간의 화목과 단결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른 가족간의 밀착이 오히려 가족간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와 모별로 미혼여성의 심리적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부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는 주로 밀착·분리, 부부 갈등해결·미해결 등 가족체계 변인이, 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는 물론 밀착·분리, 부부 갈등해결·미해결 등 가족체계 변인이 영향을 미치지만, 직업, 결혼상대 유무 등 배경변인이 상대적으로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머니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학생인 경우나 결혼상대자가 없는 경우에 더 심리적으로 독립을 보인다는 결과는 일견 모순된 것일 수 있으나,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감으로써 그동안의 통제에서 벗어나 상대적인 자유를 구가하게 되고 또 결혼상대자가 없을 경우에 결혼

을 의식하지 않거나 더 자유로운 이성교제 등을 통하여 모와 덜 의존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에 기인하지 않을까 추정된다.

전반적으로 가족체계 변인은 배경변인보다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더 많이 설명한다. 이는 미혼 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결혼상대의 유무, 결혼계획의 유무, 가까운 친구의 결혼 유무 등보다 미혼여성이 지각하는 가족체계의 속성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가족체계가 설명해내는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변량을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부모로부터의 갈등적 독립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부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태도적 독립 순이다. 이런 결과에 비추어보면 가족체계의 특성은 부와 모 중 상대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미혼여성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원천적으로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송명자, 1995), 가족체계의 특성이 빚어내는 결과는 상대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에 더 영향을 미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짐작하게 된다.

미혼여성의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체계 변인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밀착·분리이다. 가족경계 차원을 반영하는 이 변인은 심리적 독립의 하위영역별로나 부모 성별로나 모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 변인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서구 연구와는 달리 가족경계가 애매하고 느슨한 경우, 즉 가족간의 관계가 밀착되어 있을 경우 미혼여성이 오히려 더 높은 심리적 독립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화목한 가족관계를 강조하고 상호의존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보편적인 가치로 강조되는 우리나라(송성자, 2001: 40-41)에서는 밀착적인 가족관계가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안정적인 심리적 기반 위에서 오히려 미혼여성들은 자신들의 심리적 독립성을 성취해 나가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의 정교화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족기능은 서구의 가족기능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해 볼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의 정교화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한국사회에서의 가족기능은 서구의 가족기능과 같은 차원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의 한계와 이를 토대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여성 집단을 20~30대 미혼여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결혼 전의 심리적 독립 상태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지만, 여성들 전반의 심리적 독립과정을 연속적으로 보거나 성별 차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의 확대나 보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년기의 미혼여성과 성인기의 미혼

여성 집단, 혹은 청소년기의 소녀집단과의 비교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미혼남성과의 비교연구도 모색해 볼 만하다.

둘째, 미혼여성의 심리적 독립 영역은 총체적인 영역에서 측정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혼여성의 심리적 독립에 비중 있는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가족관계나 생활에 초점을 두어 진행되었다. 여성의 교육기회 확장이나 사회진출이 활발히 전개되는 현 시점에서는 심리적 독립을 측정할 수 있는 대상 영역을 확대하여, 학교나 직업사회에서의 변인들과 심리적 독립을 연계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체계의 속성은 주로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에 기반을 둔 변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가족상담이나 치료 분야에는 가족체계의 속성을 측정하거나 진단하는 양적으로 상당히 풍부한 지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다양한 차원과 측면에서 고려된 가족체계 특성 변인들을 활용하여 이러한 변인들이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혼여성의 심리적 독립은 교육현장에서 여성에 대한 기회 부여의 증대, 여성들의 성과 향상, 사회 각 분야에의 진출과 활약이 전개되는 현 시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한 연구영역이며, 특히 미혼여성의 심리적 독립에 가정생활이나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의 관계가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가족 내의 변수들과 연관 지어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탐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미혼여성의 심리적 독립과 그에 미치는 가족체계의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미혼여성의 직업준비교육이나 결혼준비교육, 혹은 부모교육, 더 나아가 사회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들 수 있다.

- 접수일 : 2006년 05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06월 14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7월 15일

【참고문헌】

- 김수진(1997). 대학생의 가족체계 유형 및 가족만족도와 심리적 독립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용태(2001). 가족치료이론. 서울 : 학지사.

- 김은영(1993).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진희(1999).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특성과 심리적 독립감 및 진로결정 수준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맹영임(2001). 가족체계와 심리적 독립수준 및 진로미결정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민경화(1994). 역기능적인 가족구조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완성(2002).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정체감, 진로결정수준과의 관계. 교육방법연구, 14(2), 104-125.
박정희(2004). 한국가족환경척도(FES-K)의 타당화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2(2), 1-26.
손정영(1990). S.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이론의 한국적 재조명.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송성자(2001). 한국문화와 가족치료. 서울: 법문사.
_____(2002). 가족과 가족치료(제2판). 서울: 법문사.
송소원(1997). 역기능적 가족구조와 진로탐색 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양은주(1997). 진로 미결정 대학생들의 진로상담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 가족체계적 관점에서의 고찰.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편. 인간의 이해, 18.
윤승경(1989). 청년기 자녀의 예착과 독립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미옥(2000). 가족체계 진단 척도로서의 동적가족화(KFD) 타당성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_____(2004). 가족체계 진단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3), 179-193.
이영선(1999). 진로미결정에 대한 심리적 독립, 예착 및 특성 불안의 관계. 전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 철(2000). 가족에서 심리적 독립의 결정요인과 그 효과.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정은희(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 적응과의 상관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최연실(1996). 가족적응력·옹집성 평가 척도(FACES)에 관한 연구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31-145.
한혜준(1993). 분리-개별화와 가족옹집력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umrind, D.(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 Psychology Monography*, 4(1), 2-3.
Beavers, W. R.(1981). A System Model of Family for family therapis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7, 229-307.

- Becvar, D. and Becvar, R.(1988). *Family therapy: A systemic integration*. Boston: Allyn and Bacon, Inc.
- Blos, P.(1979). The second individuation process of adolescence. In Blos, P. *The Adolescent Passage: Development Issu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Bowen, M.(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Broderick, C. B. & Smith, J.(1979). The general systems approach to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 2). New York: Free Press.
- Chodorow, N.(1978).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Douvan, E. & Adelson, J.(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Wiley.
- Edler, G. H.(1980). *Family structure and socialization*. New York: Arno Press.
- Gilligan, C.(1982).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Goldenberg, I. & Golenberg, H.(1991). *Family therapy on overview*(3rd.). Californi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Josselson, R.(1980). Ego development in adolescence. In J. Adelson(Ed.), *Hand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188-210. New York: Wiley.
- Josselson, R.(1988). *Finding herself : Pathways to identity development in woman*. San Francisco: Jossey-Bass.
- Kandel, D. & Lasser, G. S.(1969).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independent in the United States and Denmark.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1, 348-358.
- Lucas, M. S.(1997). Identity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 :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4, 123-132.
- Mahler, M. S., Pine, F. & Bergman, A.(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Minuchin, S.(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os, R. H. & Moos, B. S.(2002). *Family Environment Scale Manual*(3rd ed.). Palo Alto, CA: Center for Health Care Evaluation,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Stanford University Medical Centers.
- Moore, D.(1987). Parent-adolescent separation: The construction of adulthood by late adolescents, *Development Psychology*, 32(2), 298-307.
- Olson, D. H., Sprenkle, D. H. & Russel, C. S.(1979).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I. Cohesion and adaptability dimensions of family types and clinical applications. *Family Process*, 18, 3-28.
- Satir, V.(1971). *Peoplemaking*. Palo Alto, CA: Science and Behavior Books.
- Wechter, S.(1983). Separation difficulties between parent and young adult. *Social Casework*, 64, 97-104.